與 국회의장 선거 본격화…조정식·박지원·김태년 '3파전'

조정식 "총선 승리 교두보…국민주권·민생국회 구축"
박지원 "검찰·사법개혁 선제적 정비…빛의 혁명 완수"
김태년 "국가적 과제 개헌…민생경제전략회의체 신설"

조정식

박지원

김태년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간 대표할 국회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경기 시흥을)·박지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김태년(5선·경기 성남 수정구)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며 '3파전'에 돌입했다.

서울 출신의 조정식 의원은 친명계와 초선 중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고, 완도 출신 박지원 의원은 당원투표 20% 반영을 활용한 당심 우위를 적극 어필하고 있다.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은 원내대표 출신 정책통으로 유능한 국회 운영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일인 지난 4일 조정식·박지원·김태년 의원은 의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 1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 뒤 본회의 표결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민주당 경선 승자가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 셈이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조정식 의원은 "민주당의 파란 피가 흐르는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23대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놓겠다"며 "당·정·청과 국회가 '원팀'이 돼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 당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되면서 국회의장 후보군 중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인증'을 받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당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앞세워 마지막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서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면서 "일 잘하는 K국회, 국민, 당원, 의원, 대통령께서 걱정 안 하시는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며 "지원을 더 잘하는 박지원에게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특히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호남 지역을 정치적 배경으로 삼는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앞장서면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고 있다.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상임위의 고의 지연·파행을 막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의장은 당적이 없고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 수정구에서만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통령과 정치적 연고를 공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적 뿌리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에 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

국회직인 국회의장 선거엔 그간 의원 투표만 반영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된다. 오는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13일 당일 의원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당심의 향배를 살필 수 있어 '8월 전당대회 전초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와 함께 국회부의장 선거에는 민홍철(4선) 의원, 남인순(4선) 의원이 각각 도전장을 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AI·행정통합 시대, 환경이 경쟁력 좌우

광주환경공단, 지속가능 도시 핵심기관 부상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이 맞물리면서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환경 인프라'가 급부상하고 있다.

단순 공공시설 관리 영역에 머물던 환경기관이 시설운영, 데이터와 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흐름이다.

광주환경공단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방공기업 중 하나다.

공단은 지난해 하수처리장의 AI 전환을 위한 중장기 용역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투자 단계에 들어섰다.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AI 기반 자율운영 체계' 구축을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 예산 투입 계획까지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번 용역은 하수처리 전 공정에 AI를 적용해 수질·에너지·약품 사용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일부 시설에서는 지능형 수질 측정기와 AI 분석 기반 운영이 도입돼 전력비 약 10%, 약품비 20% 이상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공단은 향후 AI 기반 자율운전과 예측관리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관리 패러다임을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단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수·폐수·폐기물 시설의 광역 운영과 에너지 생산 기지화가 가능해지면서 환경공단은 '광역 환경 플랫폼'이자 친환경 도시 운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환경공단 김병수 이사장은 "환경공단의 역할은 더 이상 시설 운영에 머물지 않는다"며 "AI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와 탄소중립 실현,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과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공단은 광역 환경관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환경이 곧 도시의 미래 산업이자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어린이 공약 발표하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어린이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사회로…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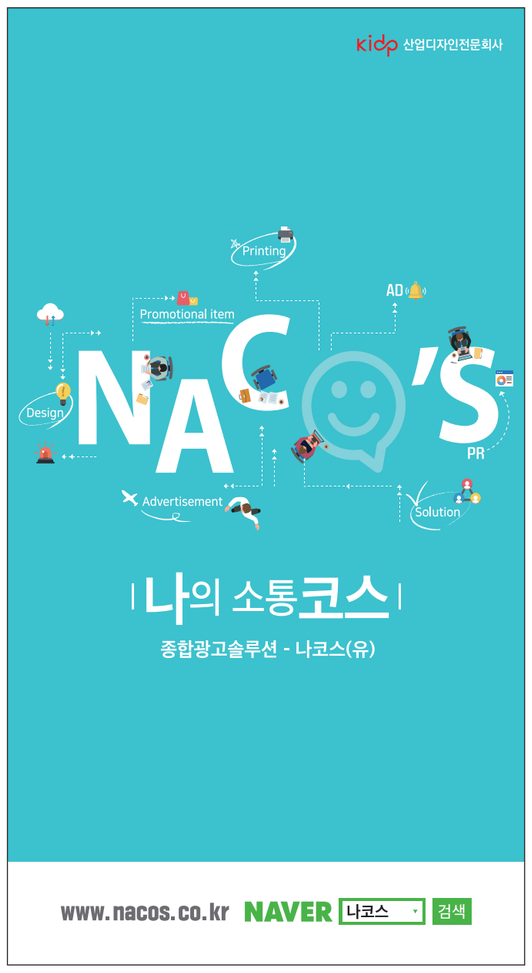
2022년 전국 최초 지원센터 개소…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사회적 단절로 고통받는 이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운영하는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2022년 설립됐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3년이 지난 때였다. 센터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생활습관 및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 일경험·취업 연계, 동아리(자조모임) 활동 등 은둔 당사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 프로그램인 '무등산 속 마음산책'은 일명 '명랑한 은둔자 모임'으로 불린다. 외출이 두렵거나 무기력증에 빠진 당사자들이 편백숲, 미술관, 사찰 등을 함께 거닐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무튼 출근'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상 회사인 '아무튼 회사'에 4주 동안 흐트러진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진로 탐색 등의 도움을 얻는다.

센터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136명이 센터를 찾았다. 이용자 통계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20대가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8명, 10대 22명, 40대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양동민 기자 yang00@